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제 40 - 9 호

2023년 2월 26일

-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 이번 주간예 공동체학교들이 입학식과 함께 개학합니다.
꾸러기학교(3월 2일) 어린이학교(3월 2일) 멋쟁이학교(2월 26일)
- 사랑방공동체 4차 총회가 오후 1시 30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멋쟁이학교 개강여행이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안동에서 있습니다.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총회가 27일(월) 11:00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있습니다.
- 신한섭군 박한나양 결혼식이 3월 4일(토) 12:10 잠실 더베네치아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연갑 · 이윤순 집사 가정 (감사)
조장희 · 이재신 집사 가정 (감사)
서병욱 · 임진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결혼기념 감사)
채영대 집사 · 장지영 권사 가정 (결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의미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은 자들을 위한 도구, 하지만 그 저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해결하신 놀라운 사건의 중심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의미를 가져와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길을 따르며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군가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은 그리스도 한분 이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생명을 움켜잡는 자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지만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명은 호흡하는 몸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며 가지는 삶의 의미와 의지를 통합하는 더욱 큰 자신을 생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자기 자신을 망치고 관계를 망칩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행동과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격과 힘의 방향에 관련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생각을 체계화 시킴으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진동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항상 괴롭히며, 더 커질 때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는 그 죄성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이 더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 부릅니다. 나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고착된 나의 본성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방어기제가 되어 나와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강하게 남아있어 딱 봐도 무엇인지 알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을 잘 쓰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 요청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이 방어기제를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불필요해 집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갈을 입에 물어봐도, 많은 수행과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괴롭히고 시나브로 거대해져 우리를 지배하기 쉽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도 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진동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부분 나 스스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던 곤고한 자가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매일의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 십자가와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더욱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

< 창세기 1장 15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90 459 / 249

기도 : 이윤희 권사

성경 : 요한복음 17장 14~26절

제목 : 진리 안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

1.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What)

<문단구분>

14절~19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20절~26절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2. 의미: 제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Why)

1)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2) 우리는 보냄을 받았으나 보호가 필요합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 적용: 말씀을 따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자. (How)

1)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자.

2)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답게 살아가자.

여행지에서 선교지로

어딘가 여행한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곳에서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을 때는 그 감동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2015년 3월, 저도 전역을 하고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4월에 8.1, 5월에 7.6의 강진을 겪은 네팔은 온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도였던 카트만두 바로 근처에서 일어났던 지진이라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교단체에서 구호 활동이 아니라 전도지를 배부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접하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신학생들 사이에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새문안교회 청년들과 연합하여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중심으로 복구작업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계획을 짜면서 현지의 필요를 물어보고, 갈 수는 없지만 도움을 보내려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의 구호 물품도 챙겼습니다. 부탁받은 아이들 수업에 필요한 것과 선물들, 텐트, 옷가지 등을 챙기고 7월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씻지 못해서 콧물과 눈물로 더러워진 아이를 안고 울어도 보고, 무너져서 잘 수 없는 집에서 굳이 제게 차를 대접한다고 꺼내오시는 할아버지와 눈빛으로 대화도 해보고, 닭장이 무너진 마을에서 손님에게 무언가 만들어주겠다고 몇 마리 없는 염소를 잡아 만든 전통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나는데 마을 분들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두 손을 합장하고 웃고만 계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텐트에서 자면서 잔해를 치우고,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마주하고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으나, 이후 해당 마을 분들은 교회를 인정하게 되었고, 네팔은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시선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공동체 이돈희 청년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봉헌위원 : 한태수/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마태복음 16 : 24-25 인도자
2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민수기 14 : 19-20 인도자
92, 8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창세기 2 : 15-17, 3 : 1-7 설교자
79 사랑방
“ 죄의 시작, 불순종 ” 정재훈 목사

549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공동기도문

자신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주는 유혹과 거짓에 속아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죄의 시작, 불순종

에덴동산을 맡기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에덴동산을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소중한 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죄의 시작 불순종.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범죄하게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따라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신뢰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시 맡기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다시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돌보는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이충환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주일 오후에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는 꾸러기학교 졸업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멋쟁이학교와 어린이학교 졸업생 8명 중 4명 그러니까 절반이 이전에 꾸러기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꾸러기학교 교사로서 이 친구들의 졸업을 지켜보는 마음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본인에게조차 희미한 유년기의 추억을 교사인 저는 아직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어릴 적 귀여운 얼굴이 아른거리며 함께 여행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쑥 자란 친구의 졸업식을 감사와 감동을 버무린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나머지 4명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매일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만날 때 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한 주 동안 새학기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회의하고 부족한 것은 없나 살피며 역할을 나눴습니다.

교실마다 쌓여있던 먼지와 쓰레기들을 정리하였고 평소에는 손이 닿지 않던 곳들까지 잘 살피며 청소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마음 따뜻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학교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내부를 중심으로 청소했습니다. 흙을 밟으며 뛰노는 즐거운 학교이지만 그 흙발 그대로 차를 타기 때문에, 차량에 흙과 먼지가 항상 많아 특별히 더 꼼꼼하게 실내 청소를 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교학년 교실이 있는 위쪽 교실들은 나무들은 정리가 되었지만 길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목공소장님께서 와 주셔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길에 나와 있던 그루터기들과 빠져나온 돌뿌리, 나무뿌리들을 치웠습니다. 한쪽 공터에는 그루터기로 된 의자도 생겼습니다. 이곳에 둘러앉아 수업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어린이학교 편입생들과 생일자들을 위한 준비와 여러 행정적 일들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이학교 개학과 즐거운 소리가 무림리에 울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학생을 다음 과정으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동체 학교는 같은 터 위에 있기에 얼굴을 영영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점점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줄어들어든다는 것은 마주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6년의 시간동안 웃고 떠들고 때론 혼나는 일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채운 기도와 노력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흘러갑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봄방학도 마무리하면서, 멋쟁이학교도 새로운 시작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는 선생님들이 모여 2023년도 1학기를 위해 준비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개강여행, 수업과 교과서, 기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는 봄방학이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금요일에는 멋쟁이학교 활동의 주무대인 교육관 2층을 싹-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인연은 언제나 마음을 달리게 합니다. 새 학기, 새 학년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은 거둬들이는 새로움에 딱딱뜨리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좌충우돌하는 청소년 시기에 함께 살아가면서 모든 멋쟁이학교 구성원들이 행복과 성장의 시간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다함께 파이팅~!

< 교사 : 이어진 >

신뢰와 존중으로

사랑방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로마서 14:17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 평화,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삶,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없는 삶,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 없는 삶, 가난한 자를 돕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평화는 근심 없고, 두려움 없고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합니다. 평안, 화평, 화해 등으로 공동체가 행복하면 그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 받는 삶이면 언제나 기쁨의 삶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한몸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 상황보다 우선합니다.

함께 모이고, 일하고, 분배하고, 먹고, 쉬는 생활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기초생활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서로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배려, 포용, 용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존중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사람은 동등하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신뢰와 존중이 공동체 내에 없다면 소모전을 길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일의 효율성보다도 신뢰와 존중으로 인한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울려 함께 살고자 한다면 신뢰와 존중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지불할 댓가가 있다면 마땅히 지불해야 합니다.

정의, 평화, 기쁨이 있는 하나님나라의 삶을 한 번 멋지게 살아내 보는 사랑방공동체를 기대해봅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용신 장로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11장, 454장

성경 :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 지도자들을 위해>
1) 한공협 지도자들이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2)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3)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들이 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지체들을 위한 기도>
1) 사랑방공동체의 여러 역할을 맡은 자들을 위해
2) 주일에 있을 총회를 위해
3) 멋쟁이학교 입학식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체는 가지치기를 한 나무를 정리하느라 작업이 계속된 한 주였습니다.

학교 개학을 앞두고 각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생활할 공간을 정리하고, 교재와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로 기대감이 가득하기도 했지만,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을 지나며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쳐줘야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게 자라는 것처럼, 흠어진 마음의 가지를 치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